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의 특징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신민정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구 구조의 다양화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수 측면에서 1인 가구는 1980년 4.8%에서 2012년 현재 25.3%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통계청, 2013). 1인 가구의 증가양상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만혼의 증가, 가족가치관에 따른 이혼,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변미리, 2008). 미국의 경우 1인 가구 중 미혼 독신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U.S. Census Bureau, 2011)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이현정, 2012). 1인 가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들을 저소득계층의 관점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소득수준 및 유형에 따른 분류를 통해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를 구분하여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를 구분하여 포함한 연구는 주택 및 주거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들에서의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주는 직장이 있으며 결혼은 하지 않은 미혼 가구주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가구 유형의 변화는 단순히 사회·인구학적 현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 및 금융 시장을 비롯한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1인 가구의 다양한 형성요인에 따른 사회문제는 그에 필요한 사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향후 1인 가구의 유형 즉, 원인 중 비혼·만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인 가구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그에 따른 재무구조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특징에 따른 재무구조를 조사하고 이러한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다양한 1인 가구의 재무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관련 연구 동향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은 젊은 층의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만혼과 독신선호 경향,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동시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 하겠다.

한국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은 개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개성이 강해진 사회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회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1인 가구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용 불안, 소득감소,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불안정한 연금제도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가계경제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경제적 불안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는 자신들의 노후나 질병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갖게 된다.

한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나 지출패턴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심영, 2002; 이윤정·김순미, 2004). 대도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1인 가구 주택수요와 정책에 관한 연구(신상영, 2011; 이희연 외, 2011)가 진행되었다. 김혜영 외(2007)에서는 비혼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가족의식과 생활실태, 노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고, 변미리 외(2009)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산업예비군, 골드세대,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로 구분하여 이들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1인 가구 정책을 개발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옥연, 문영기(2011)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자산구조를 보통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누어 비교하고 주택의 소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종사상 지위, 거주 지역, 월 저축과 순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경옥(2006)은 남성 1인 가구의 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라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혼인상태에서는 사별로 인한 남성 1인 가구의 총 가계지출이 총 가계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1인 가구의 계속적 상태로 노인이 된 경우와 젊은 세대의 1인 가구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2. 재무구조와 관련한 연구

재무구조는 재정자원을 구성하는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가계 재무구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김민정·이희

숙, 2010; 노윤주, 1997; 배희선·최현자, 1996 등). 또한 가계의 자산규모 및 자산구성, 부채 구성의 변화 및 부채로 인한 가계부실화가능성 등을 분석한 연구(전승훈·임병인, 2008; 남상호, 2007; 성영애, 2006; 김정호, 2004; 문숙제 외, 2002; 박주영·최현자, 1999 등)가 있다. 자산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교육수준과 주택소유여부 등이 가계의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자산구성 및 자산선택 관련 연구는 충분하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승훈·임병인, 2008). 부채관련해서는 김정호(2004)는 가계 부채 잔액 증가의 원인으로 가계소비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들고 있으며, 성영애(2006)의 연구에서는 가계부채 보유 여부에 혼인상태, 취업상태,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금융자산 규모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은 199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주의 특성과 경제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산과 부채의 연구를 살펴보면 각각의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지만, 자산과 부채를 연계해 논의한 경우는 많지 않다(전승훈·임병인, 2008). 이에 전승훈·임병인(2008)은 보유자산 및 자산구성, 소득변화 등 상환가능성과 연계한 부채부담 및 부채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년 이후 총자산과 순자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가구특성과 자산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 가구와 자가 거주 가구의 자산보유행태에 변화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시사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부채보유가구의 비중과 부채보유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기관 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2000년 이후 가구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부채가 함께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가계의 부실화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산과 부채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연계해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 연구 방법

각 가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무관리

를 위해서는 각 가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인 가구는 가족중심의 보통가구와는 다른 가치관 및 생활양식,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보통가구와는 다른 생활모습을 형성하고 있어 재무관리측면에서도 다른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김옥연·문영기, 2010). 본 연구는 2012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해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문제

2012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인 가구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척도의 구성

1) 기초자료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재무건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0년 제1회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제3회 조사부터 가계금융조사의 표본규모와 조사내용을 확대 개편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실시 기간은 2012년 4월 25일 부처 5월 15일까지였으며, 자산 및 부채는 201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표본 가구이며, 학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1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 표본은 제외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1인 가구 대상 선정에 적합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2)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

선행연구들을 통해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주택보유여부, 수도권거주여부를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수로 하여 1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연령은 20대 이상으로 90대 이상까지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재무변수

소득5분위,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부채, 금융부채, 순자산을 대표적 재무변수로 하여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5분위 측정은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내의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금융비중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여 새롭게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산구조는 크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소득계층별로 금융자산구조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유입출금, 적립식적금펀드, 저축보장성보험, 예치식저축펀드, 주식채권, 기타로 살펴보고 금융 투자 시 주된 목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부채구조는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가계가 부채로 인한 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가계재무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부채비중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개별 가계의 부채비중의 비율은 부채비중의 수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통상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어진다(김학주, 2005). 본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부채비중을 계산하여 부채비중의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1> 부채비중의 수준에 따른 분류

분류	범주
안정집단 (stable)	less than 0.4
중간위험집단 (Mid-level)	0.4 to less than 0.7
매우위험집단 (High-level)	0.7 or more

자산구조에서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은 투자성향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으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유통성 지표로 긴급사태에 대처해야하는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기자금의 역할도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최현자 외, 2003) 최현자 외(2003)는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0.9 미만을 준거로 삼았고, 양세정·정지영(2010)은 0.6 미만을 준거기준으로 하였다.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유통성 지표는 최현자 외(2003)는 0.1미만을 준거기준으로 하였다.

4. 분석 방법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3,578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을 하였다. 1인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1인 가구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 및 소득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재무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카이검증, T 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1인 가구의 특성

1)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70대가 가장 많았다. 사별로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혼 1인가구도 31.3%로 나타나 이혼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보다 많았다.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더 많았고 자가 소유보다는 임대 거주를 하는 1인 가구가 많았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64.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비율인 62.8% 보다는 더 많은 비율이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인 부채비중에 따른 분류 결과 1인 가구주 대부분이 안정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은 대부분이 소득1분위에 해당하였으나 기존의 저소득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1인 가구를 더욱 다양하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나 함께 포함하여 각 소득계층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

N=3,578

변수	분류	빈도(%)	변수	분류	빈도(%)
성별	남성	1,335(37.3)	거주지	수도권	1,158(32.4)
	여성	2,243(62.7)		비수도권	2,420(67.6)
연령	20대	306(8.6)	자가 소유 여부	자가 임대	1,338(37.4) 2,240(62.6)
	30대	492(13.8)			
	40대	408(11.4)			
	50대	518(14.5)	부채 여부	부채 없음 부채 있음	1,255(35.1) 2,323(64.9)
	60대	679(19.0)			
	70대	819(22.9)			
	80대	334(9.3)	부채 비중 ^{*)}	안정집단 중간위험집단	3492(97.8) 21(0.6)
	90대	22(0.6)			
M(SD) = 57.55(18.26)					
교육	안받음	715(20.0)			

수준	초등학교	858(24.0)	소득 5분위	매우위험집단	58(1.6)
	중학교	395(11.0)		소득1분위	2,187(61.1)
	고등학교	800(22.4)		소득2분위	762(21.3)
	대학(3년제 이하)	240(6.7)		소득3분위	379(10.6)
	대학(4년제 이상)	484(13.5)		소득4분위	187(5.2)
혼인 상태	대학원 이상	86(2.4)		소득5분위	63(1.8)
	미혼	1,119(31.3)	자산총액 5분위	자산총액1분위	1,826(51.0)
	사별	1,717(48.0)		자산총액2분위	916(25.6)
	이혼	742(20.7)		자산총액3분위	438(12.2)
				자산총액4분위	250(7.0)
				자산총액5분위	148(4.1)
취업 여부	취업자 비취업자	2,031(56.8) 1,547(43.2)	순자산 5분위	순자산액1분위	1,696(47.4)
				순자산액2분위	947(26.5)
				순자산액3분위	506(14.1)
				순자산액4분위	254(7.1)
				순자산액5분위	175(4.9)

*) 결측값 7

2) 1인 가구의 소득계층 구분에 따른 일반적 특성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자가 소유여부, 취업 여부, 거주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소득 1·2분위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으며, 소득 3분위 이상에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소득 1분위는 60대 이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2분위는 30대, 소득 3·4분위는 20~30대가 과반 이상, 소득 5분위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상태의 경우 소득 1분위는 사별, 소득 2분위 이상은 미혼이 더 많았다. 자가 소유여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가보다는 임대의 형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최하위와 최상위계층의 자가와 임대 소유 비율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소득 2분위의 격차가 가장 컸다. 취업여부는 소득 1분위만 비취업자가 많았고 나머지 소득계층은 대부분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대체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표 3>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특성

변수		소득5분위					x ² / F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	CLASS V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556(25.4)	379(49.7)	230(60.7)	126(67.4)	44(69.8)	371.769
	여	1631(74.6)	383(50.3)	149(39.3)	61(32.6)	19(30.2)	***
연령대	20대	65(3.0)	141(18.5)	78(20.6)	18(9.6)	4(6.3)	1484.825

	30대	75(3.4)	178(23.4)	134(35.4)	85(45.5)	20(31.7)	
	40대	131(6.0)	137(18.0)	67(17.7)	55(29.4)	18(28.6)	
	50대	306(14.0)	130(17.1)	50(13.2)	16(8.6)	16(25.4)	
	60대	528(24.1)	108(14.2)	31(8.2)	11(5.9)	1(1.6)	***
	70대	743(34.0)	54(7.1)	17(4.5)	2(1.1)	3(4.8)	
	80대	318(14.5)	13(1.7)	2(0.5)	0(0.0)	1(1.6)	
	90대 이상	21(1.0)	1(0.1)	0(0.0)	0(0.0)	0(0.0)	
	M(SD)	66.26 (14.54)	45.78 (15.84)	41.30 (13.89)	40.21 (10.18)	45.67 (12.23)	517.651 ***
혼인상태	미혼	289(13.2)	398(52.2)	258(68.1)	140(74.9)	34(54.0)	1080.916
	사별	1470(67.2)	175(23.0)	50(13.2)	14(7.5)	8(12.7)	***
	이혼	428(19.6)	189(24.8)	71(18.7)	33(17.6)	21(33.3)	
자가 소유여부	자가	903(41.3)	231(17.3)	111(30.3)	66(35.3)	27(42.9)	42.280
	임대	1284(58.7)	531(69.7)	268(70.7)	121(64.7)	36(57.1)	***
취업여부	취업자	823(37.6)	631(82.8)	343(90.5)	177(94.7)	57(90.5)	851.117
	비취업자	1364(62.4)	131(17.2)	36(9.5)	10(5.3)	6(9.5)	***
거주지	수도권	538(24.6)	327(42.9)	171(45.1)	90(48.1)	32(50.8)	158.139
	비수도권	1649(75.4)	435(57.1)	208(54.9)	97(51.9)	31(49.2)	***
거주주택 전용면적 M(SD)		57.21 (39.85)	54.06 (48.69)	58.25 (48.98)	57.80 (31.29)	71.90 (35.66)	2.964 *

*p<.05, ***p<.001

2. 1인 가구의 재무구조

1)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물자산은 연령, 혼인상태, 자가 소유여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은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의 경우 50대, 사별, 임대,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90대 이상, 미혼, 자가 소유자, 비취업자가 가장 적었다. 금융자산의 경우 남자, 30대, 미혼, 임대, 취업자가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여자, 90대 이상, 사별, 자가 소유자, 비취업자가 가장 적었다.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는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부채총액과 금융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총액의 경우 40대가 가장 많았고 금융부채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90대 이상은 부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사유로 1인 가구를 이루는 집단과 자가 소유자, 취업자가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1인 가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무구조

변수		자산		부채		부채비중	순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총액	금융부채		
		M(SD)	M(SD)	M(SD)	M(SD)	M(SD)	M(SD)
성별	남	7319.59 (19819.33)	3677.86 (7822.54)	1804.04 (6636.01)	1305.37 (4427.95)	0.27 (2.81)	9193.41 (19185.74)
	여	7572.05 (18634.47)	2578.62 (5359.63)	1305.37 (660.26)	660.26 (3016.03)	0.07 (1.10)	9103.97 (18857.51)
	t	-0.383	4.976 ***	4.149 ***	5.173 ***	3.082 **	0.136
연령대	20대	2041.46 (7237.22)	3582.23 (4075.84)	702.52 (2281.53)	588.60 (2005.76)	0.00 (0.02)	4921.17 (7767.05)
	30대	5402.44 (17158.05)	5282.31 (7045.32)	1560.89 (4707.07)	1288.98 (3821.73)	0.07 (1.18)	9123.86 (16253.12)
	40대	7468.52 (21023.86)	4796.64 (8333.00)	2354.41 (6181.63)	1484.65 (4116.67)	0.10 (1.66)	9910.75 (21353.18)
	50대	9762.58 (23359.92)	3289.77 (9671.41)	2401.00 (6981.89)	1737.94 (4897.31)	0.38 (3.58)	10651.38 (24408.38)
	60대	9084.61 (16190.60)	2251.24 (5077.88)	1266.18 (4602.14)	791.00 (3417.03)	0.18 (1.98)	10069.68 (16009.31)
	70대	8832.77 (23197.53)	1687.85 (3869.22)	808.52 (6084.86)	410.02 (3486.12)	0.09 (0.02)	9712.10 (21930.75)
	80대	5770.63 (13359.42)	1230.01 (3567.06)	140.74 (1121.51)	91.2575 (944.00)	0.01 (0.10)	6859.90 (14349.16)
	90대 이상	1773.64 (3352.42)	720.27 (1428.69)	0.00	0.00	0.00	2493.91 (4499.33)
	F	7.474 ***	25.408 ***	9.889 ***	11.600 ***	1.868	4.165 ***
혼인상태	미혼	5571.00 (16538.12)	4779.79 (8758.66)	1644.65 (5346.40)	1119.62 (3544.91)	0.10 (1.41)	8706.13 (17101.53)
	사별	8830.06 (19724.45)	1815.82 (3982.58)	856.11 (5152.51)	491.97 (3317.80)	0.09 (1.55)	9789.78 (18809.52)
	이혼	7224.54 (20843.23)	3001.95 (6159.03)	1948.59 (5436.22)	1517.59 (4242.42)	0.31 (3.04)	8277.89 (21819.94)
	F	10.013 ***	75.404 ***	14.030 ***	24.059 ***	3.785 *	2.066
자가 소유여부	자가	16892.05 (26240.33)	2364.87 (5621.53)	1992.68 (7180.09)	1324.91 (4922.02)	0.12 (1.43)	17264.24 (25085.93)
	임대	1854.56 (9273.84)	3361.43 (6812.10)	933.02 (3680.19)	647.72 (2511.54)	0.16 (2.17)	4282.98 (11686.22)
	t	24.668 ***	-4.511 ***	5.821 ***	5.434 ***	-0.656	20.977 ***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7542.68 (18778.64)	3753.19 (1985.18)	1656.48 (5378.07)	1244.39 (450.08)	0.16 (2.17)	9639.38 (19141.67)
	비취업자	7392.19 (19480.69)	1985.18 (4894.91)	899.70 (5148.16)	450.08 (2863.52)	0.11 (1.55)	8478.23 (18746.74)
	t	0.233	8.248 ***	4.247 ***	6.538 ***	0.794	1.814

***p<.001

2)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구조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구조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채비중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각 자산(순자산)은 높았다. 또한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도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 모든 소득계층이 안정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재무구조

변수	자산		부채		부채비중	순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총액	금융부채		
	M(SD)	M(SD)	M(SD)	M(SD)		
CLASS I	4797.74 (11635.02)	1420.11 (2791.13)	484.24 (2030.02)	351.01 (1717.80)	0.19 (2.30)	5733.61 (12087.58)
CLASS II	7814.95 (17662.16)	3145.51 (4096.81)	1325.60 (3852.11)	956.75 (2745.06)	0.12 (1.50)	9634.86 (17603.47)
CLASS III	12455.79 (26050.74)	6108.56 (7527.77)	2925.57 (7639.89)	1879.66 (5465.42)	0.02 (0.08)	15638.78 (23832.50)
CLASS IV	16432.64 (29238.96)	9926.30 (15468.51)	4318.52 (8356.04)	3096.97 (6408.31)	0.01 (0.05)	22038.42 (32286.81)
CLASS V	39912.02 (63150.61)	16192.94 (18943.31)	12232.62 (23124.25)	6991.35 (13642.97)	0.02 (0.04)	43872.33 (53252.39)
전체	7477.85 (19082.80)	2988.77 (6411.58)	1329.28 (5292.46)	900.96 (3620.91)	0.14 (1.92)	9137.34 (18978.01)
F	79.501 ***	220.088 ***	117.964 ***	88.86 ***	1.029	116.537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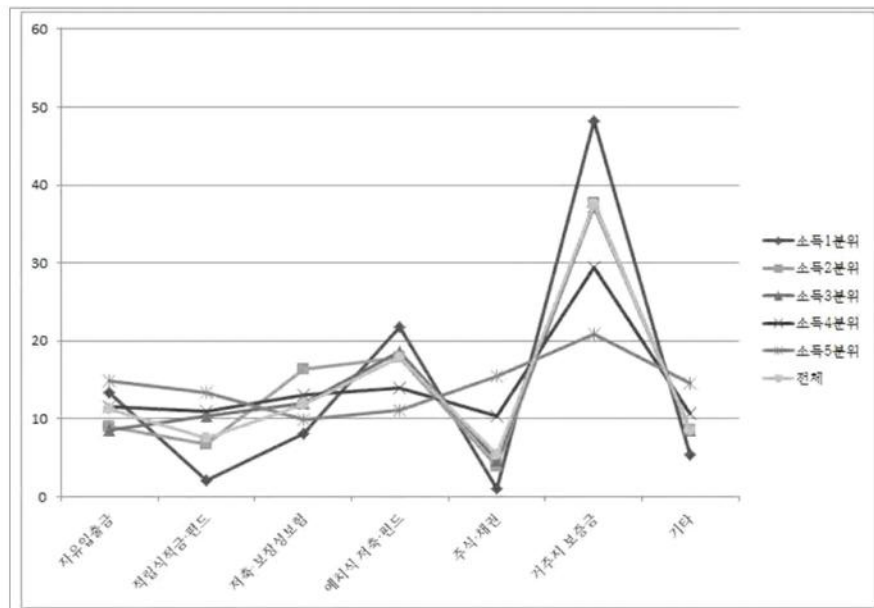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구조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전체 금융자산 중 거주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1분위의 경우는 48.19%가 전체 금융자산 중 거주지 보증금이 차지했고 소득5분위의 경우는 20.87%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5분위의 경우 자산구조에서 각 항목의 구성비가 비교적 고른데 반해 다른 소득계층의 경우는 거주지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상대적으로 소득1분위의 자산구성비가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구조

구분	자유 입출금	적립식 적금·펀드	저축·보장 성보험	예치식 저축·펀드	주식· 채권	거주지 보증금	기타
	M(SD)	M(SD)	M(SD)	M(SD)	M(SD)	M(SD)	M(SD)
CLASS I	190.78 (552.49)	29.03 (301.94)	115.58 (386.93)	309.01 (1613.79)	15.47 (208.62)	684.39 (1904.23)	75.85 (680.82)
자산비중	13.43	2.04	8.14	21.76	1.09	48.19	5.34
CLASS II	282.97 (588.93)	211.49 (651.25)	513.28 (1084.01)	563.10 (1976.27)	123.06 (1489.92)	1183.69 (2390.70)	267.92 (1216.12)
자산비중	9.00	6.72	16.32	17.90	3.91	37.63	8.52
CLASS III	523.40 (732.81)	630.40 (1373.71)	736.89 (1284.66)	1133.34 (4985.45)	284.26 (1481.21)	2274.92 (4458.59)	525.36 (2292.82)

자산비중	8.57	10.32	12.06	18.55	4.65	37.24	8.60
CLASS IV	1147.88 (2137.43)	1081.59 (2164.21)	1294.69 (2063.57)	1388.40 (4850.73)	1025.83 (8832.96)	2921.36 (4930.07)	1064.56 (3659.89)
자산비중	11.56	10.90	13.04	13.99	10.33	29.43	10.72
CLASS V	2405.78 (4107.00)	2161.35 (5582.61)	1598.83 (2021.94)	1797.78 (7321.25)	2500.00 (7857.09)	3380.00 (6134.98)	2349.21 (5041.12)
자산비중	14.85	13.35	9.87	11.10	15.44	20.87	14.51
전체	334.67 (987.01)	224.14 (1128.91)	353.83 (968.21)	533.07 (2708.70)	163.41 (2451.14)	1123.58 (2822.53)	256.07 (1558.64)
자산비중	11.20	7.50	11.84	17.84	5.47	37.59	8.57
F	134.053 ***	114.972 ***	142.852 ***	16.805 ***	22.922 ***	62.092 ***	54.173 ***

***p<.001



<그림 1>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구조

소득계층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카이검증 결과에서 5미만 셀이 20%를 넘어 이를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집단내에서 살펴보면 노후대책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주택구입 및 보증금 마련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소득1·2분위의 경우 사고질병대비, 소득3·4·5분위는 결혼자금마련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분석을 살펴보면 사고질병대비, 상속 및 증여, 노후대책, 부채상환, 여가, 주택구입

및 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계층은 소득1분위가 가장 많았다.

<표 7>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

구분	주택구입 및 보증금 마련	노후 대책	결혼 자금 마련	사고 질병 대비	부채 상환	내구재 구입	여가	상속 및 증여	창업 및 사업 확장	기타	총계
CLASS I	115	706	27	103	48	0	15	39	7	18	1078 (61.2)
집단간	(43.9)	(69.5)	(20.5)	(86.6)	(58.5)	(0.0)	(46.9)	(84.8)	(16.7)	(72.0)	
집단내	(10.7)	(65.5)	(2.5)	(9.6)	(4.5)	(0.0)	(1.4)	(3.6)	(0.6)	(1.7)	
CLASS II	79	166	52	13	15	3	9	3	15	5	360 (20.4)
집단간	(30.2)	(16.3)	(39.4)	(10.9)	(18.3)	(50.0)	(28.1)	(6.5)	(35.7)	(20.0)	
집단내	(21.9)	(46.1)	(14.4)	(3.6)	(4.2)	(0.8)	(2.5)	(0.8)	(4.2)	(1.5)	
CLASS III	42	73	36	3	9	2	4	4	13	1	187 (10.6)
집단간	(16.0)	(7.2)	(27.3)	(2.5)	(11.0)	(33.3)	(12.5)	(8.7)	(31.0)	(4.0)	
집단내	(22.5)	(39.0)	(19.3)	(1.6)	(4.8)	(1.1)	(2.1)	(2.1)	(7.0)	(0.5)	
CLASS IV	21	50	13	0	7	1	3	0	3	0	98 (5.6)
집단간	(8.0)	(4.9)	(9.8)	(0.0)	(8.5)	(16.7)	(9.4)	(0.0)	(7.1)	(0.0)	
집단내	(21.4)	(51.0)	(13.3)	(0.0)	(7.1)	(1.0)	(3.1)	(0.0)	(3.1)	(0.0)	
CLASS V	5	21	4	0	3	0	1	0	4	1	39 (2.2)
집단간	(1.9)	(2.1)	(3.0)	(0.0)	(3.7)	(0.0)	(3.1)	(0.0)	(9.5)	(4.0)	
집단내	(12.8)	(53.8)	(10.3)	(0.0)	(7.7)	(0.0)	(2.6)	(0.0)	(10.3)	(2.6)	
총계	262	1016	132	119	82	6	32	46	42	25	1762
χ^2	(14.9)	(57.7)	(7.5)	(6.8)	(4.7)	(0.3)	(1.8)	(2.6)	(2.4)	(1.4)	(100.0)
	276.369 ***										

***p<.001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구조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관련 대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 대비 각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담보대출과 할부 및 할부 미상환액의 경우 소득3분위, 신용 및 신용카드관련 대출의 경우 소득1분위, 갯잔 후 불입금액은 소득4분위, 자가 보증금은 소득2분위, 자가의 부동산임대는 소득5분위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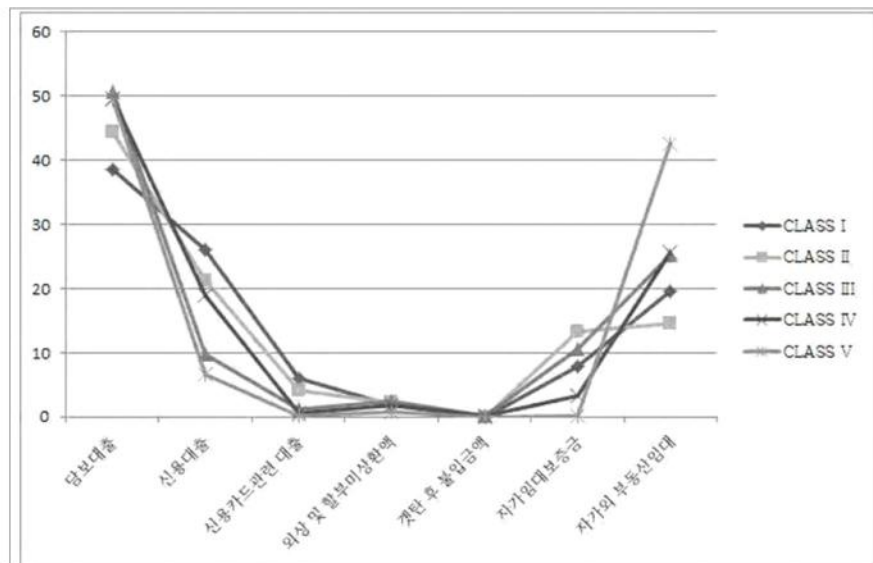
<표 8>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구조

(n=3,578; %)

구분	금융부채					자가임대 보증금	자가의 부동산임대	총부채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갯잔 후 불입금액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CLASS I	186.57 (883.83)	126.52 (1412.19)	29.10 (338.72)	8.78 (89.36)	0.04 (1.17)	38.47 (393.54)	94.76 (909.22)	484.24 (2030.02)

총부채 대비	38.53	26.13	6.01	1.81	0.01	7.94	19.57	100.0
CLASS II	589.12 (2210.09)	280.97 (1482.66)	55.45 (454.62)	30.57 (157.38)	0.66 (13.05)	175.59 (1882.34)	193.25 (1401.45)	1325.60 (3852.11)
총부채 대비	44.44	21.20	4.18	2.31	0.05	13.25	14.58	100.0
CLASS III	1480.94 (5310.10)	287.31 (1087.20)	35.37 (281.54)	74.14 (307.27)	1.90 (36.98)	307.65 (2787.84)	738.26 (3343.96)	2925.57 (7639.89)
총부채 대비	50.62	9.82	1.21	2.53	0.06	10.52	25.23	100.0
CLASS IV	2146.08 (5773.69)	817.76 (1919.68)	22.09 (124.32)	78.96 (324.02)	5.08 (59.46)	144.39 (1684.02)	1104.17 (3800.45)	4318.52 (8356.04)
총부채 대비	49.69	18.94	0.51	1.83	0.12	3.34	25.57	100.0
CLASS V	6053.68 (13551.25)	817.19 (2310.41)	23.13 (132.04)	97.35 (299.01)	0.00 (0.00)	31.75 (251.98)	5209.52 (14153.69)	12232.62 (23124.25)
총부채 대비	49.49	6.68	0.19	0.80	0.00	0.26	42.59	100.0
전체	615.12 (3201.25)	224.73 (1458.44)	34.90 (351.69)	25.57 (166.74)	0.63 (19.16)	101.61 (1351.52)	326.71 (2614.23)	1329.28 (5292.46)
총부채 대비	46.27	16.91	2.63	1.92	0.05	7.64	24.58	100.0
F	79.272 ***	13.451 ***	0.879	21.967 ***	3.484 **	4.069 **	71.447 ***	117.964 ***

p<.01, *p<.001



<그림 2>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구조

소득계층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채비율을 안전, 중간위험, 매우위험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않았지만 집단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1분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위험집단이 많았고 나머지집단은 대부분 안정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1인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부채비중

변수	안정집단 stable	중간위험집단 Mid-level	매우위험집단 High-level	χ^2
CLASS I	2122	15	46	11.920
집단간	(60.8)	(71.4)	(79.3)	
집단내	(97.2)	(0.7)	(2.1)	
CLASS II	746	3	10	
집단간	(21.4)	(14.3)	(17.2)	
집단내	(98.3)	(0.4)	(1.3)	
CLASS III	375	2	2	
집단간	(10.7)	(9.5)	(3.4)	
집단내	(98.9)	(0.5)	(0.5)	
CLASS IV	186	1	0	
집단간	(5.3)	(4.8)	(0.0)	
집단내	(99.5)	(0.5)	(0.0)	
CLASS V	63	0	0	
집단간	(1.8)	(0.0)	(0.0)	
집단내	(100.0)	(0.0)	(0.0)	
전체	3492 (97.8)	21 (0.6)	58 (1.6)	

부채비중의 세집단에 대한 특성은 <표 10>에서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혼인상태, 자가 소유여부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분석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정집단에 더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의 경우 안정집단에는 사별이 가장 많았고 중간위험집단이상인 이혼 집단이 가장 많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여부는 임대를 한 집단이 더 많았고 자가를 소유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1인 가구의 부채비중 분류별 특징

변수	성별		혼인상태			자가 소유 여부	
	남	여	미혼	사별	이혼	자가	임대
안정집단 stable	1287	2205	1102	1686	704	1294	2198
집단간	(36.9)	(63.1)	(31.6)	(48.3)	(20.2)	(37.1)	(62.9)
집단내	(96.8)	(98.3)	(98.6)	(98.3)	(95.4)	(96.9)	(98.3)
중간위험집단 Mid-level	9	12	4	7	10	12	9
집단간	(42.9)	(57.1)	(19.0)	(33.3)	(47.6)	(57.1)	(42.9)
집단내	(0.7)	(0.5)	(0.4)	(0.4)	(1.4)	(0.9)	(0.4)
매우위험집단 High-level	33	25	12	22	24	30	28
집단간	(56.9)	(43.1)	(20.7)	(37.9)	(41.4)	(51.7)	(48.3)
집단내	(2.5)	(1.1)	(1.1)	(1.3)	(3.3)	(2.2)	(1.3)
χ^2	10.094 **		25.244 ***			8.754 *	

p<.01, *p<.001

소득계층에 따른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투자성향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득계층 모두 60%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주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 비율이 유동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인 가구주 대부분이 자가 보다는 임대 거주를 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 판단된다. 소득5분위의 경우만 금융자산 비중보다 실물자산 비중이 더 높았다.

부채비중 분류에 따른 안정집단은 실물자산 41%와 금융자산 59%로 비슷한 비중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위험 집단의 경우 실물자산 66%와 금융자산 34%로 금융자산에 비해 실물자산이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위험 집단의 경우 실물자산 60%와 금융자산 40%로 중간위험 집단보다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위험집단에 속하는 소득계층이 대부분 1,2,3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11> 1인 가구의 소득계층과 부채비중 분류에 따른 자산구성

변수		안정성 지표	F	성장성 지표	F
		실물자산/총자산		금융자산/총자산	
		M(SD)		M(SD)	
소득계층	CLASS I	0.43(0.45)	5.782 ***	0.57(0.45)	5.782 ***
	CLASS II	0.37(0.40)		0.63(0.40)	
	CLASS III	0.38(0.38)		0.62(0.38)	
	CLASS IV	0.45(0.37)		0.55(0.37)	
	CLASS V	0.53(0.35)		0.47(0.35)	
	전체	0.42(0.43)		0.58(0.43)	
부채비중	안정집단	0.41(0.42)	9.223 ***	0.59(0.42)	9.223 ***
	중간위험집단	0.66(0.46)		0.34(0.46)	
	매우위험집단	0.60(0.49)		0.40(0.49)	
	전체	0.42(0.43)		0.58(0.43)	

***p<.001

3.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금융자산의 경우 성별, 자가 소유여부, 경제활동상태, 소득계층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소득계층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금융자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가 소유자보다는 임대 거주자일수록, 남

자보다는 여자가,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일수록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 R²=22.6%).

실물자산의 경우 부채총액, 자가 소유여부, 금융부채, 소득계층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이 많을수록, 자가 거주자보다는 임대 거주자일수록, 금융부채가 적을수록,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실물자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dj R²=49.0%).

부채총액의 경우 금융부채, 실물자산, 자가 소유여부, 소득계층, 금융자산, 경제활동상태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가 많을수록,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임대 거주자보다는 자가 거주자일수록,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일수록 부채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Adj R²=78.0%).

금융부채의 경우 부채총액, 실물자산, 자가 소유여부, 혼인상태, 연령, 경제활동상태, 소득계층, 금융자산, 성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이 많을수록, 실물자산이 적을수록, 자가 거주자보다는 임대 거주자일수록, 미혼보다는 다른 형태(사별, 이혼)의 가구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일수록,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금융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 R²=72.0%).

<표 12>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금융부채
	β	β	β	β
성별(남)	.057 ***	.005	.006	-.020 *
연령	-.015	.037	.026 *	-.038 **
혼인상태(미혼)	-.009	.023	-.019	.053 ***
자가 소유여부(자가)	.117 ***	-.340 ***	.093 ***	-.066 ***
경제활동상태(비취업)	-.046 *	.023	.027 **	-.031 **
소득계층	.422 ***	.134 ***	.031 **	.028 *
금융자산	-	.094 ***	.028 **	-.025 *
실물자산	.142	-	.307 ***	-.149 ***
부채총액	.100	.713 ***	-	.910 ***
금융부채	-.070	-.271 ***	.715 ***	-
Adj R ²	.226	.490	.780	.720
F	110.964 ***	361.102 ***	1336.760 ***	970.038 ***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기존에 접근했던 저소득 계층의 관점에서 다양한 형

태의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1인 가구주가 많았으며 사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혼, 이혼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와 임대 거주자가 많았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대부분 안정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득 1,2분위에는 여자가, 소득3분위 이상에는 남자가 더 많았다. 소득1분위에는 사별 및 비취업한 가구주가 많았고 소득2분위 이상에는 미혼 및 취업상태인 1인 가구주가 많았다. 자가 소유여부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대 거주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물자산은 50대 및 사별한 가구주, 금융자산은 남자·30대·미혼의 가구주가 더 많았으며 두 자산 모두 임대 거주자와 취업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는 남자, 이혼, 자가 소유자, 취업자가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부채총액과 금융부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득5분위의 경우 자산구조에서 각 항목의 구성비가 비교적 고른데 반해 다른 소득계층의 경우는 거주지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상대적으로 소득1분위의 자산구성비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채구조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소득1분위가 상대적으로 매우위험집단이 많았고 나머지 계층은 대부분 안정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거주 집단이 상대적으로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집단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구성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실물자산이 60%를 넘으면 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1인 가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연령은 부채구조에, 자가 소유여부와 소득계층은 자산과 부채구조 모두에, 경제활동상태는 실물자산을 제외한 자산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실물자산과 부채총액에 정적 영향을 주고 금융부채에는 부적 영향을 주며, 실물자산은 부채총액에는 정적 영향을 주고 금융부채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총액은 실물자산과 금융부채에 정적 영향을 주고 금융부채는 실물자산에 부적 영향을 주고 부채총액에는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기준 1인 가구의 고학력 비중은 11.6%로 다인가구 27.3%와 비교해 상당히 낮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대학이상 고학력 비중은 22.6%로 많은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결혼관의 변화 등에 따른 만혼화 현상과 고학력자들이 여러 생활경제상의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세태가 반영된 결과

라 할 수 있겠다.

둘째,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봐도 40% 미만으로 월세 등의 비율이 높아 크게 개선되지 않아 1인 가구의 주거 상태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자가 보유율을 37.3%로 2010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이 높더라도 자가보다는 임대주택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처럼 주거 선택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도 있지만, 향후 결혼 계획 및 취업상태 등에 따라 굳이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1인 가구는 내부이질성이 매우 큰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하는 소비가치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셋째, 2010년 기준 44%정도가 비취업자인 것과 비슷한 수치로 본 연구에서는 43.2%가 비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취업상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못하고 근로빈곤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노후소득보장시스템도 미비하여 노인 1인 가구가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1인 가구의 다양한 형성요인은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생성하게 된다. 기존 2세대 4인 가족 중심의 정책기조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변화해야 하는 중요 과제이다. 다인 가구 중심의 주거공급 정책에서 벗어난 소형주택공급 및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정책이나 1인 가구의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1인 가구의 자산 배분구조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금융자산 투자목적에서 기본적인 노후 및 주거 대책이 목적이었지만 하위계층일수록 사고질병대비가 목적이었고 상위계층 중 결혼자금마련이 투자 목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1인 가구내 계층별 특별한 요구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인가구들의 선행연구들에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의 기준과 1인 가구의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60%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집단으로 분류되는 다인가구와 달리 1인 가구는 40% 선 미만에서 안정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인가구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40% 정도여도 가능하지만 1인 가구는 60% 선이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1인 가구 특성별로 합리적 자산배분을 통해 재무안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과 각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사회문제의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주택 및 주거관련해서만 주로 대상자가 되었던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의 특성과 기존 재무관련

연구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구분해 살펴 본 1인 가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파악해 보았다. 향후 관련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유형 분류에서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해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을 통한 생애 효용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금융 시장의 마케팅 측면에서 경제력을 갖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1인 가구가 갖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여 그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정책의 수립·결정·집행의 기초자료로도 활용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옥연·문영기(2010), “가계 자산구조와 주택소유결정요인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9(1), 25-38.
- 김민정·이희숙(201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 분석”, *한국지역사회행위과학회지*, 21(1), 53-69.
- 김정호(2004), “가계부채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9(2), 1-16.
- 김학주(2005),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2(4), 141-161.
- 노윤주(1997), “도시근로자 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상호(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문숙재·정순희·여윤경(2002), “가계 순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3(3)
- 박주영·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변미리(2008), 서울의 1인 가구 현황과 도시 정책 수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 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3(3), 193-206.
- 이윤정·김순미(2004), “남녀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2), 93-106.
- 이현정(2012), “한국과 미국의 1인가구의 가구 및 주거 특성”, *생활과학연구논총*, 16(1), 167-175.
- 전승훈·임병인(2008),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의 변화분석”, *제정학연구*, 1(2), 133-162.
- 통계청(2013), 2012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가구주택) 결과, 보도자료.
- U.S. Census Bureau(2011), *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hh-fam.htm>.